

# 新나는 한국 수영



황선우가 25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 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세계수영선수권 남자 200m 자유형 결승에서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선우, 박태환도 못한 세계수영선수권 2연속 메달

### 롱코스 자유형 200m 1분44초42 '한국新' 세우며 동메달 1위에 0.12초 뒤져... 동반 결승 이호준 1분46초04로 6위

황선우(20·강원도청)가 '원조 마린보이' 박태환도 이루지 못한 롱코스(50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황선우는 25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2에 터치패드를 찍어 3위에 올랐다.

1분44초42는 황선우가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 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확할 때 세운 1분44초47을 0.05초 단축한 한국신기록이다.

황선우는 2년 연속 롱코스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시상대에 올랐다. 이번 후쿠오카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손에 넣었다.

이날 결승에서 황선우는 50m를 24초23으로 두 번째로 던졌다.

100m를 50초77, 3위로 통과한 황선우는 150m를 1분17초57에 지나며 다시 2위로 올라섰다.

150m 지점까지는 '디펜딩 챔피언' 다비드 포포비치(18·루마니아)가 1위를 달렸다.

황선우는 결승점을 약 25m 지점을 앞둔 순간에는 선두에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복병'으로 꼽혔던 매슈 리처즈(20·영

국)가 막판에 힘을 내며 1분44초30으로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쳤다. 황선우와의 격차는 0.12초였다.

20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 계영 800m 금메달,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계영 800m 동메달을 따긴 했지만, 그동안 메이저 대회 개인 종목에서는 메달을 얻지 못했던 리처즈는 후쿠오카에서 개인 종목 메이저 대회 첫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도쿄 올림픽 자유형 200m 챔피언이자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 3위인 톰 딘(23·영국)도 1분44초32로 황선우보다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지난 대회 챔피언이자 전신수영복 착용을 금지(2010년 1월)한 이후 자유형 200m에서 1분43초대를 갱(1분42초97) 유일한 선수인 포포비치는 레이스 막판에 처져 1분44초90으로 4위에 머물렀다.

황선우는 포포비치를 제치고, 동메달을 따냈다.

롱코스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서 메달을 목에 건 한국 선수는 박태환과 황선우, 두 명뿐이다.

박태환은 2007년 멜버른 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과 자유형 200m 동메달을 차지했고, 2009년 로마 대회에서는 노메달에 그친 뒤, 2011년 상하이 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로 명예를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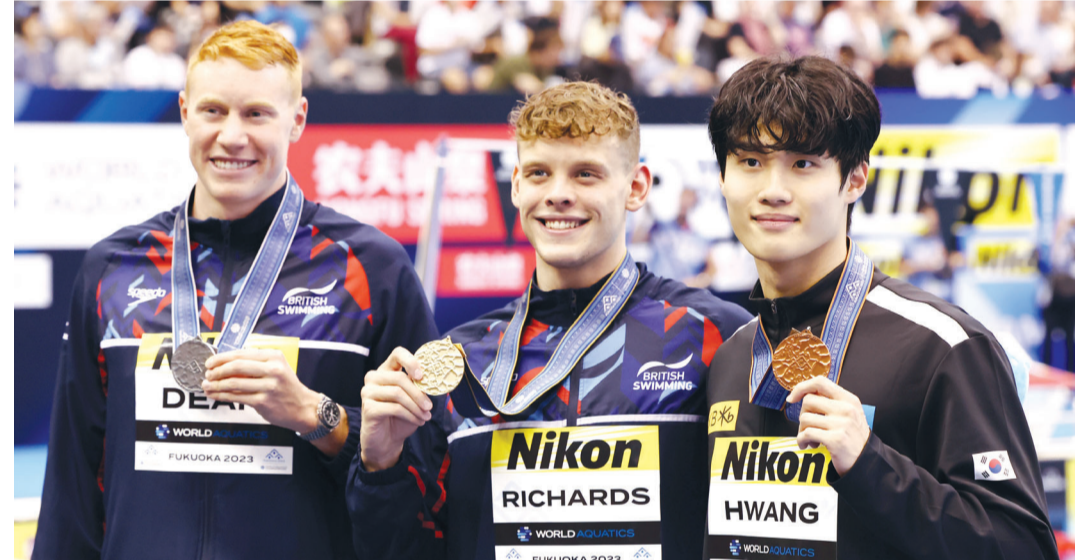
박태환에 이어 한국 수영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황선우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2회 연속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박태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세계선수권 메달 2개 이상을 얻은 한국 선수로 기록됐다.

함께 결승 물살을 가른 이호준(22·대구광역시청)은 1분46초04로 6위를 차지했다.

시상대에는 서지 못했지만, 이호준은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개인 종목 결승 무대에 올라 황선우와 함께 '한국 수영 경영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일 종목 동반 결승 진출'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2019년 광주 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31위로 예선 탈락하고, 지난해 부다페스트 대회에서는 계영에만 출전했던 이호준은 처음으로 개인 종목 결승 무대에 올라 '톱 6'의 성과를 냈다.



동메달을 획득한 황선우(맨 오른쪽)가 25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 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세계수영선수권 남자 200m 자유형 메달 세리머니에서 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혼성 혼계영 4년만에 기록 경신

한국 혼성 혼계영 대표팀이 4년 만에 한국 기록을 갱아 치렀다.

이은지(방산고)~최동열(강원도청)~김영범(강원체고)~허연경(방산고)이 출전한 한국 혼성 혼계영 대표팀은 26일 일본 후쿠오카 마린메세 후쿠오카홀에서 열린 2023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혼성혼계영 400m 예선에서 3분47초09에 경기를 끝냈다.

종전 한국 기록은 2019년 11월 경영월드컵 6차 대회에서 이주호~문재현~안세현~정소은이 합작한 3분47초92였다.

이은지가 배영, 최동열이 평영, 김영범이 접영, 허연경이 자유형 영자로 나선 이번 혼성대표팀은 종전 기록을 0.83초 단축했다.

예선 3조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은 전체 순위에서는 13위를 해 8개 국가가 출전하는 결승 티켓을 얻지는 못했다.

여자 배영 50m 예선에도 출전했던 이은지는 28초40의 기록으로 전체 19위에 올라 상위 16명이 겨루는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은지와 예선 16위 선수 안드레아 베리노(아르헨티나·28초24)의 격차는 0.16초다.

남자 개인혼영 200m에 나선 김민석(부산광역시수영연맹)은 2분01초75, 전체 25위로 예선에서 탈락했다.

여자 접영 200m의 박수진(경북도청)은 2분11초20, 전체 18위로 16위까지 얻는 준결승 티켓을 어렵게 놓쳤다.



## “부상 알리고 싶지 않았다...모두가 아는 손흥민 모습 보이겠다”

### 시즌 개막 앞두고 각오 다져 지난 5월 리그 마치고 탈장 수술 “프로라면 누구나 부상은 있어”

축구 국가대표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사진)이 2023-2024시즌 개막을 앞두고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손흥민은 26일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라고 부상 후유증을 털어낸 몸 상태를 표현하며 “다시 좋은 활약을 펼칠 준비가 됐다”고 자신감을 내보냈다.

2021-2022시즌 리그 경기에서 23골을 넣어 아시아 국적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

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2022-2023시즌에는 절반 이하인 10골에 그쳤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의 저의 모습은 많은 팬이 아시는 손흥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며 “또 그 이전에 6시즌 간 활약이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시즌 손흥민 부진의 원인으로는 역시 부상이 지목된다.

지난해 11월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안와골절로 컨디션 관리에 애를 먹었고, 5월 말 리그 일정을 마친 뒤에는 탈장 수술을 받았다.

손흥민은 먼저 지난 시즌 팀 부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털어냈다.

그는 “사실 지난 시즌은 최악이었다”며 “선수들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자책했다.

손흥민은 “토티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땀 때는 99%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2023시즌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시즌 내내 안 좋았다”며 “일상생활은 괜찮았지만 경기장에서는 거의 매 순간 통증을 느껴야 했다”고 설명했다.

탈장 수술을 시즌이 끝나고서야 받은 이유를 두고 “팀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탈장으로 인한 통증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프로 선수면 누구나 조금씩 부상이 있다”며 “부상에 대해 원래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선수가 '오늘 몸 상태는 100%'라는 마

음으로 경기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즌 도중 해임된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에 대해 손흥민은 “2021-2022시즌 계가 득점왕에도 올랐고, 콘테 감독과 사이도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다”며 “지난 시즌에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이 훌륭한 시즌은 아니었지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돌아보며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모두 아는 손흥민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은 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싱가포르팀 라이언시티와 프리시즌 경기 출전을 준비한다.